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	배포일시	2018. 1. 12.(금)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첨단항공과	담 당 자	• 과장 정용식, 사무관 정재원, 주무관 원정윤 • ☎ (044) 201-4315, 4290	
협업 기관	항공안전기술원 무인항공연구실	담 당 자	• 실장 강창봉, 선임연구원 김규범 • ☎ (032) 727-5740, 5750	
보 도 일 시		2018년 1월 13일(토) 19:00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.		

국산 드론 「야간비행」 1호 출격...평창올림픽 드론 성화 봉송 13일 광화문 광장에서의 비행, Wifi 중계도 척척

< 드론 성화봉송 · Wifi중계 >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오는 13일 17시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시 진행되는 드론 야간비행을 「특별비행승인제」 도입 이후 공식 1호로 승인했다.

- 지난해 11월 도입된 특별승인제는 그간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,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·허용하는 제도로써, 승인 전에 안전기준 적합여부, 운영 난이도, 주변 환경 등이 고려된다.

※ 드론의 야간·가시권 밖 비행은 안전상의 이유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 중

□ 행사는 개막식-성화봉송(어가행렬·드론 등)-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.

-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는 드론*(11kg급)은 기체에 성화봉을 장착하고, 고종 즉위40년 창경기념비에서 출발하여 KT광화문지사 앞까지 3분간 150m를 이동하여 다음 주자에게 전달된다.

* 제원: 110x110x91cm 옥타콥터, 배터리 구동방식, 최고속도 21km/h

○ 성화봉송 중에는 드론 야간촬영도 진행된다. KT west 사옥 앞에서 이륙한 촬영드론(4kg)은 이순신 동상을 중심으로 약 20분간 선회 비행하면서 각 주자들의 봉송 장면과 행사장을 촬영한다.

○ 또한 5G 중계기를 탑재한 무인비행선(41kg, 길이 11m)은 행사장 상공에서 제자리 비행하며 행사장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Wifi 서비스를 제공한다.

□ 야간비행의 안전확보·사고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들도 갖춘다.

○ 우선 전문 기술인력(3명)이 비행상황(전파감도 등)을 모니터링하며 민간업체, 군 등으로 구성된 관제* 및 현장 통제인력(20여명)과 유사시 대응이 가능한 의료진도 배치된다.

* 이착륙장, 이동경로 상에 배치되어 무전기·휴대폰 등을 통해 조종자와 상시 연락망 유지

○ 한편, 본 행사에서 활용되는 드론은 설계부터 통신망기반 제어·통합관제 등 핵심기술까지 국내에서 개발·제작되었으며, 야간·도심상공 등 고난이도 비행을 통해 외산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 기술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

성화봉송



Wifi 중계

< 드론 상용화 현황 >

□ 아울러,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해간 국내 드론 시장 성장 결과를 발표했다.

○ '17년말 기준 장치신고는 작년 대비 79.3%(1,722대), 드론 조종자 수는 220.8%(2,928명)로 급증했고, 일정규모(300여개)로 증가하던 사용사업 업체도 45.7%(471개) 확대됐다. '16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규제 완화 효과가 직·간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.

※ 국내 드론 운영 현황, 누적 통계

구 분	'13	'14	'15	'16	'17
기체신고 대수	195	354	921	2,172	3,894
사용사업 업체수	131	383	698	1,030	1,501
조종자 수	52	667	872	1,326	4,254

- 농업, 단순촬영에 편중되던 사업 범위도 점차 다변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. 약 1년간 교육(8.3%p)과 측량·탐사(3.5%p) 목적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한 반면,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던 단순촬영(9.2%p)과 농업(3.7%p) 분야는 감소했다.

구 분	'16.11.7		'17.6.30		'17.12.31	
	업체수	비율	업체수	비율	업체수	비율
농업	236	24.5%	295	23.9%	312	20.8%(▼3.7%p)
단순촬영	631	65.6%	748	60.6%	847	56.4%(▼9.2%p)
측량·탐사	46	4.8%	77	6.2%	125	8.3%(▲3.5%p)
건축·토목	25	2.6%	32	2.6%	43	2.9%(▲0.3%p)
교육	22	2.3%	69	5.6%	159	10.6%(▲8.3%p)
기타	2	0.2%	14	1.1%	15	1.0%(▼0.1%p)
합계	962	100%	1,235	100%	1,501	100%
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드론 특별승인 첫 사례를 기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승인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며, 향후 업계,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기준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.”고 말했다.

- 특별비행승인 검사를 총괄하는 항공안전기술원 강창봉 실장은 “도심상공 야간 비행은 높은 기술력과 안정성이 필요하며 해외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.”고 덧붙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정재원 사무관(☎ 044-201-431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